

탐방

내쇼날푸라스틱(주)

인간과 자연 융합시킨 플라스틱 종합메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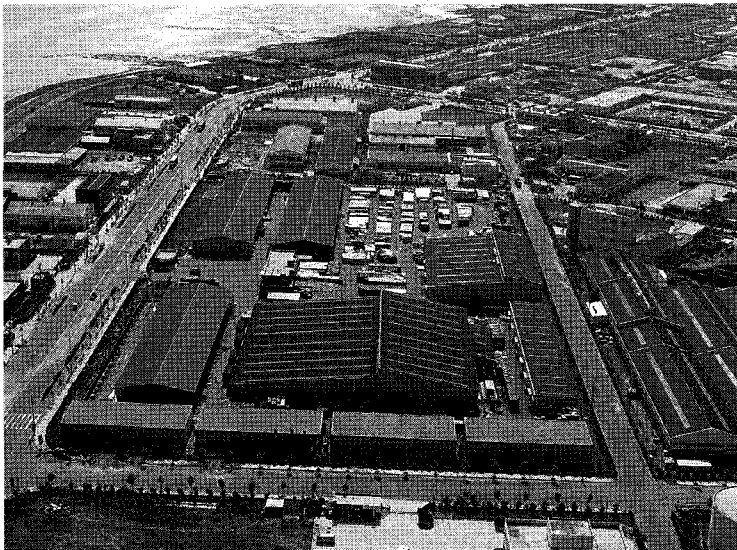
국민기업으로 탈바꿈 성장에 주력

합성수지가공업은 각종 가정용기류, 식품용기류 등의 잡화류를 비롯하여 산업용기류, 운반용 팔레트류와 자동차 부품 등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산업 각 부문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물류이동이 활발해지고 물류관리 체계화가 각 업계의 중요 관심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 물류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등 점차 다양하고 고기능화 되어 가고 있다.

1965년 5월에 설립된 내쇼날푸라스틱(주)이 그 일례다.

95년도 850억의 매출액을 올린 내쇼날푸라스틱(주)은 1965년 5월, 향도 부산에서 그 첫출발을 힘차게 내딛고, 66년 부산본공장을 완공, 68년 서울공장완공, 그리고 86년 반월공장, 90년 전북 정읍에 정읍공장 완공에 이어 87년에는 국내 최대의 형체압 3천톤 사출기를, 89년에는 형체압 4천500톤 사출기를 반월공장에 설치함으로써 명실공히 플라스틱산업의 대명사가 됐다.

하루 평균 50톤의 팔레트를 생산하고 있는 내쇼날푸라스틱(주)은 싱가포르와 중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얀마에 현지법인을 두고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합성수지제조시장의 특성상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내쇼날푸라스틱은 고기능, 고밀도 제품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개발 및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의 부진을 만회하



▲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내쇼날푸라스틱(주) 전경

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품의 대형화, 고기능을 중시한 제품개발 및 생산판매로 소비자의 욕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

동업종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출업체인 내소날푸라스틱은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및 고기능화되고 다양한 제품의 생산, 적극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한 결과 매출은 전년보다 하락했으나 순이익면에서는 최근의 적자를 탈피하여 전년 동기대비 60%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했다.

관리팀 김일섭 차장은 내소날푸라스틱(주)에 대해 “저희 내소날푸라스틱은 세계 우수 기업들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자체기술개발을 통

적극적인 SOC 투자 자세 필요

- 교통과 물동량의 원활한 흐름 위해 -



▲김종철 이사

“플라스틱산업은 타업종보다 시장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수입품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되는 제품의 생산, 판매에 더욱 주력해야 됩니다. 기존의 대규모 업체 및 중소기업, 신설업체의 난립 등으로 동업종은 시장규모, 매출 규모, 생산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동업종의 생산, 판매되는 제품은 그제품종류가 다양하고 또한 주수요자가 광범위하므로 일반적인 경기변동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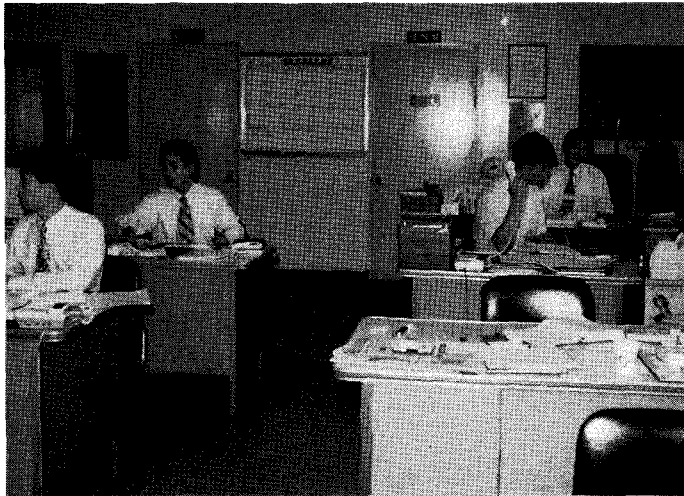
내소날푸라스틱(주) 김종철 이사는 대기업체가 유화사업에 진출한 이후 원재료의 폭등현상이 나타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년도대비 큰 변동은 없이 점차 안정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산업 전문분야에 걸쳐, 특히 물류관리에 대한 부문이 중요한 사항으로 등장함에 따라 물류관리부문의 제품에 대한 수요 및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업종의 성장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다.

가정용기의 폐쇄와 업친데 덮친 격으로 화재의 경험을 맞본 김종철 이사는 세계시장의 조류에 호응하고 국내 시장의 선점을 위해 나름대로의 리엔지니어링을 구축하고 있다.

“상반기의 호전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산업용기, 의자제품, 팔레트 등 대형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판매에 주력하여 하반기에는 더욱 수익성 있는 판매활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시장점유율에 있어서는 경쟁업체별 수요가 3~4천개에 이르는 동업종에서 주요 제품별 경쟁회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에 의한 시장점유율을 파악하기에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장과 물류의 역학관계에 있어 기술을 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계속적인 신소재개발에 전력투구할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들의 생활이 편하고 실용적이게끔 만들 것입니다.”

포장과 물류산업 발전의 복안에 대해 그는 “팔레트의 규격화에 있어 나라마다 특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리 만치 특성이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팔레트의 규격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스탠다드 규격을 4~5가지 정도 정해 거기에 맞는 제품의 생산과 다품종 소량생산에 걸맞는 보관창고의 시스템도 재설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SOC의 적극적인 투자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조성해야겠지요. 복합화물터미널의 구축과 철도의 증설로 물동량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라며 “현 팔레트시장은 아직도 목재팔레트가 전체 팔레트시장의 70% 점유하고 있지만 점점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반면에 플라스틱팔레트나 중어팔레트, 골판지팔레트 시장이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라고 전망했다.



▲ 소비자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신제품 개발에 열중인 내쇼날푸라стик(주)

한 제품력 향상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플라스틱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기능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설계로 완벽한 제품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개발과 Q.C 활동으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화 생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공간 창조를 위해 각종 생활용품의 디자인 및 색상의 패션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컨테이너용기를 끊임없이 개발, 생산공급하므로 환경보호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오랜 역사와 전통속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온 내쇼날푸라стик은 현재 4천5백톤의 국내 초대형 사출기와 내쇼날푸라стик의 기술을 접목시켜 식품, 제과, 농수산업, 기타 공업용 원부자재의 보관, 적재, 이동 등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내쇼날점보박스를 만들었다. 이 내쇼날점보박스는 고급원료인 PPC를 사용, 내화확성이 우수하여 액체 및 화공약품사용에도 편리하다.

철저한 QC 체제와 완벽한 생산설비에서 생산되는 절첩식 상자류는 보관과 적재 등 공간활용에 혁신을 이룩했다. 따라서 보관 및 운송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태어난 내쇼날 SN 상자는 180° 회전시 Stacking(적재)과 Nesting(케착)이 자유로운 제품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공장자동화 시스템 및 농수산물 운송에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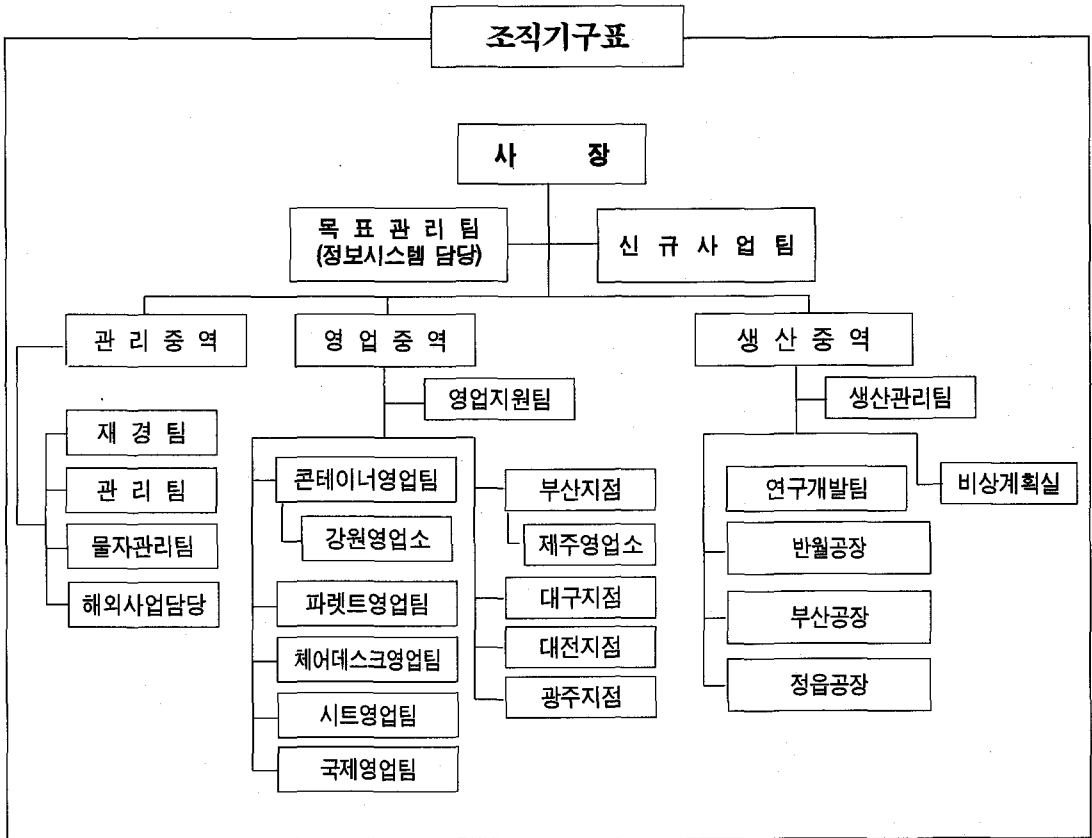
효과를 발휘할 뿐 아니라 각종 부품, 자재운송 보관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제품이다.

상자류외에 지난 30여년간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양식장수조용 WINBOARD를 개발한데 이어, 자동차내장재용 HIPS SHEET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특수용도의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플라스틱 시트는 재질 및 규격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용도에 적합한 시트를 정확히 선택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내쇼날 보빈상자류, 수산물상자류, 소주상자류, 우유, 요구르트상자, 눈썰매, 쓰레기통 등 다양한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민기업으로 성장할 터

각종 가정용품에서 산업용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내쇼날푸라стик은 94년도 화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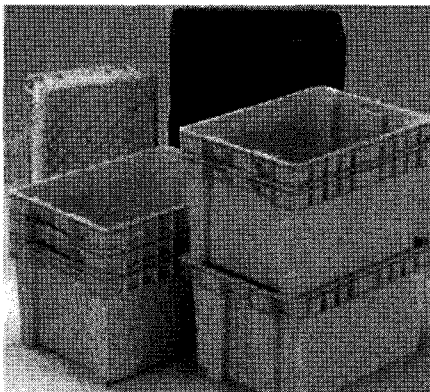


음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가공업의 선두주자로
 위치한 것은 고품질의 각종 생활용품과 공업용품
 을 기획,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일념에서 기인한 듯 싶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일섭 차장은 “내쇼날푸
 라스틱은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을 선도해온
 개척자답게 품질과 기능, 애프터서비스까지 완
 벽을 더하는 동시에 첨단 신소재 개발과 끊임없
 는 품질혁신,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통해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국민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
 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국내 플라스틱산업을 이끌어가는 선
 도자로서, 플라스틱산업의 주춧돌로서 자리하
 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비단 내쇼날푸라스틱
 (주) 뿐만 아니라 전 포장업체가 갖추어야 할
 모습인 듯 싶다. ☐



▲내쇼날푸라스틱(주)의 SN상자류

변준섭 기자